

재정적 압박과 전략정보 유무가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 동 규[†]

조 은 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 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 부정 삼각형, Tit for tat, 죄수의 딜레마

* 본 연구는 홍동규(2020)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홍동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범심리학 박사과정

‡ 교신저자: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Tel: 02-2260-3254, E-mail: ekjo@dongguk.edu

2019년과 2020년에 국내에서 발생하여 이슈화된 사건 중 다수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전통적인 노상 강력범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화이트칼라 범죄들이었다(조귀동, 2020). 나아가 전통적인 강력범죄들도 화이트칼라 직군을 공범으로 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업무상 지위 및 특성들을 범행에 도구처럼 사용하는 식의 혼합된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 한 예시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Telegram) 엔(n)번방 사건에서 한 공익근무요원은 자신이 업무 상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조주빈에게 제공하고(이지윤, 2020), 조주빈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무기로 하여 아동과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등 은밀하고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행정직 등의 공익근무요원은 직무 교육 시 항상 국가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을 받는 만큼, 그 지위 및 특성은 넓은 범위의 화이트칼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전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연간 발생 건수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8년도까지 계속 감소하였지만 2019년도에

는 2018년 대비 약 30,000건이 증가하였다. 주요 범죄군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폭력범죄는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교통범죄는 2017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산범죄 발생 건수의 경우 2017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여주다가 2018년도에 2017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약 50,000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표 2는 재산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를 범죄군 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재산범죄의 발생 건수 증감 추이는 범죄 유형별로 상이하다.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는 2017년도 이후로 2019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반면에 절도, 장물, 손괴의 경우 연간 발생 건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2015년도와 대비하여 유지되거나,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사기, 횡령, 배임 등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라고 할 수 있으며(Sutherland, 1949), 사기의 경우 고위 기업 간부 등 범죄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최승혁

표 1. 전체 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연간 발생건수 (단위: 건)

년도	전체	강력	폭력	재산	교통
15*	2,020,725	35,139	248,707	622,126	597,473
16*	2,003,416	32,919	251,814	572,153	598,587
17*	1,817,860	35,954	238,163	540,514	500,939
18*	1,728,795	35,274	233,313	576,939	427,672
19*	1,757,846	35,046	232,114	627,557	404,962

출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Vol.12, 대검찰청, 2019

표 2. 재산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합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15*	622,126	246,424	4,263	257,620	48,795	5,843	59,181
16*	572,153	202,936	2,072	250,084	52,025	5,754	59,202
17*	540,514	183,960	1,928	240,864	52,250	5,125	56,387
18*	576,939	177,861	954	278,380	57,093	5,666	56,985
19*	627,558	188,091	863	313,524	60,718	5,901	58,461

출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Vol.12, 대검찰청, 2019

등, 2009). 즉, 화이트칼라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공직자들에 의한 뇌물수수 등 권력형 범죄 또는 대기업 총수 등 최상위 계층의 횡령, 배임, 탈세 등의 경제범죄라고 대중적으로 인식되어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최근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횡령, 배임 등의 범죄 외에도 사기, 문서위조, 사이버범죄, 저작권 침해, 신분도용, 환경범죄 등 다양한 범죄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강력범죄들과도 결합하여 벌어지는 등 진화하고 있다(Payne, 2018). 또한, 이미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공직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를 오히려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능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측정 지표나 통계분류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황지태 등, 2019).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의 상당수의 경우가 획득한 재산상 이득액으로는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크기는 수십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의 규모가 크다(봉욱, 2006). 또, 유명 대기업들에 의해 장시간 발생한 환

경, 화학 범죄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처럼 밝혀진 사망피해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고, 그 후유증으로 삶이 망가진 피해자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얼핏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환경, 화학 범죄일 뿐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범죄 발생 경위를 살펴볼 때, 단지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시야를 넓혀본다면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화이트칼라들의 태만과 비윤리적 상업주의, 관리감독 기관의 부패, 연구부정행위 등이 결합되어 있다. 즉,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다수 보이고, 구조적으로 다수의 화이트칼라 범죄가 뭉쳐진 결합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범죄로 양산된 수 많은 피해자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상해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위와 권력, 조직력 등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법률위반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증거를 인멸하기 용이하다(성상현, 2012). 또한 최근 한 국내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신관식, 2019),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정도의 지위를 가진 자가 수천만원 정도의 차익을 위해 밀수입 등의 범죄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한 선택으로 보여, 범행에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의 연구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정의하거나 법률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계층인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의사결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의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근본적인 예방방안을 찾아 화이트칼라 범죄를 선제적으로 억제 및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는 Sutherland가 1939년 미국 사회학회(American Sociology Society)

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직업수행 활동의 과정에서 범한 범죄(crimes committed by a person of respectability and high social status in the course of his occupation)”라고 정의하였다(Sutherland, 1949). 이러한 정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화이트칼라 계층 중 일부 상류층에게만 초점을 두었고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Geis, 1991). 미국의 국립화이트칼라센터(the 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는 “개인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 합법적인 직업수행과정에서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신뢰의 책임을 저버린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정의했으며 개념요소로 비폭력성(the lack of violence against the victim), 지위의 이용, 기만행위 등을 들었다(Cliff & Desilets, 2014). 이윤호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든 사회계층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행하는 직업지향적 법률위반”이라고 정의하며,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살인, 강도, 강간 등은 직업적 절차의 일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이윤호, 2011). 이렇듯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고정된 개념이 아닌 진화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범위를 넓혀가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장 넓은 범위를 포용하는 이윤호의 정의를 차용하되, 일반적인 범죄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Sutherland 등의 전통적 정의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지위’

등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직군 종사자로 재해석, 한정하여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행하는 직업지향적 법률위반’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정의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피해자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이 있다(이장욱, 2017).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업범죄와 기업범죄 또는 조직체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범죄, 고용원에 대한 범죄, 고객에 대한 범죄, 일반 시민에 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면 개인적 이득을 노린 범죄(personal crime), 신뢰의 남용(abuses of trust), 영업 범죄(business crime) 등으로 분류하고,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면 속임수와 사기(sting and swindles), 사취(chiseling), 조직 내 지위의 사적인 남용(individual exploitation of an institutional position), 직권남용과 뇌물(influence peddling and bribery), 횡령과 고용자사기(embezzlement and employee fraud), 고객사기(client fraud), 기업조직 범죄(corporate crime)로 분류할 수 있다(이장욱, 2017).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의 특성과 틱포텐 전략

Ferejohn에 의하면 합리성은 알팍한 합리성(thin rationality)과 두꺼운 합리성(thick rationality)

의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Ferejohn, 2000). 알팍한 합리성이란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꺼운 합리성은 목적 자체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범죄들과 다르게 기회주의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여겨지며,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의사결정은 합리성의 패러다임에서부터 시작된다(Huisman, 2017).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는 고전적인 범죄자들과 다르게 통제에 대한 욕구가 낮은 자기 통제력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로 작용한다(Schoepfer et al., 2014). 즉,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고전적인 범죄자들에 비해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선택은 그 수단이 이득에 극대화라는 목표에 치중되어 법률 등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고 보편적인 정의(justice)에 어긋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책임지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고전적인 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할 뿐,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중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 말하는 참여 결정(invovement)과 상황 결정(event)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근거로 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rnish & Clarke, 2014). 그리고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조직 또는 사회 내에서 신뢰받는 자, 즉 신뢰를 쌓아둔 자들에 의해 일어난다(Freidrichs, 2009).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범행 참여 또는 상황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iterated prisoner's dilemma) 상황에 대

표 3. Axelrod의 죄수의 딜레마

		프로그램 B	
		협력	배반
프로그램 A	협력	(3점, 3점)	(0점, 5점)
	배반	(5점, 0점)	(1점, 1점)

입해보면 티포탯(Tit for tat)이라는 의사결정 모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티포탯 전략은 Axelrod가 고안한 시뮬레이션 게임 내에서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전략이다. 이는 표 3과 같은 죄수의 딜레마를 기반으로 한 비제로섬 게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전략 중 최선의 전략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보통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일 때, 개인의 욕심, 이윤의 추구 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불리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를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상호 간의 긍정적인 협동이 최선의 선택지가 된다는 사회 행동의 전략적 진화를 보여준다(Axelrod & Hamilton, 1981).

티포탯 전략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는 항상 협력한다. 둘째,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전에 했던 판단을 똑같이 따라 한다. 즉, 티포탯 전략은 선제적 협력과 신뢰, 배반에 대한 즉각적 보복, 적극적인 용서, 높은 전략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티포탯 전략의 유용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게임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야 한다. 둘째,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상대방 역시 그럴 것임을 인지한다. 셋째,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은 자신이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변별할 수 있다. 넷째,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은 자신이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방과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 다섯째, 반복 게임에서 결정되는 협력 혹은 배반의 선택지는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확인되며, 상대방의 선택 역시 동일하다. 첫 번째 전제의 존재 이유는 1회성 게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배반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제는 게임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가정이다. 세 번째 전제의 경우 상대를 변별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판단을 따라 한다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전제의 경우 따라 해야 할 판단을 한 주체를 파악할 수 없다면 자연히 전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전제의 경우 상대방의 판단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오류가 없이 판단하여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횡령 범죄의 원인을 다룬 부정 삼각형 이론(Fraud triangle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 및 원인과 이후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현상은 제한된 합리성 외에도 재정적 압박(Financial pressure), 기회(opportunity), 합리화(rationalization)의 3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Cressey, 1953). 첫 번째 요인인 재정적 압박의 경우 범죄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공유 불가능한 문제(Non shareable problem)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Kassem & Higson, 2012). 즉 개인의 유흥을 위한 금전의 마련이나, 용돈의 부족함, 사치가 심해 정상적인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공유가능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압박이라고 보더라도, 그들이 주관

적으로 공유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긴다면 이러한 문제는 압박의 요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McMahon et al., 2016). 재정적 압박을 받는 있는 일반인들은 현 상황을 해결하고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때 두 번째 요인인 실행 가능한 범죄의 기회를 인식하게 된다면 범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는 기업이나 그들이 속한 집단 내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즉,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경우, 보호나 감시가 불충분할 경우 등 허점이 있을 때 부정행위자가 보다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의 분위기가 느슨할 경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인 합리화의 경우 인지의 단계로, 자신의 내적 윤리기준에 허용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행각에서 오는 죄책감을 완화시킬 방법이 필요한데(Ruankaew, 2016), 몇 가지 예로 “나는 돈을 벌릴 뿐이다”, “고용주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훔쳐야 했다.” 또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라고 반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보상과 압박 그리고 기회 사이에 다리가 이어질 수 있다(Howe & Malgwi, 2006). 그런데 이 합리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합리화를 먼저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범죄자는 위법한 행동을 지

혜로운 것으로 포장할 수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된다.

인간은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압박, 기회, 합리화 등의 다양한 요인과 함께 개인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다(Girla & Rub, 2015). 또한 자신이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점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등 조직과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선제적인 배신 또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및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판례를 바탕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형량에 대해 논의하면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사법부와 범죄자 간에 적용한 연구(Isenhour, 2006),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이용하여 실험한 연구(Kiszlinger et al., 2011) 등과 함께 표 4와 같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토포렛 전략을 적용하여 범죄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과 형사사법 시스

표 4. Mackenzie의 모델

	처벌하지 않음 (협력)	처벌 (배반)
법률 준수 (협력)	처벌 없이 법에 따름(3.3)	오판 (0.0)
법률 위반 (배반)	검거 없이 범죄 성공(5.0)	범죄와 처벌 (1.1)

템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Mackenzie, 2007^a) 등의 딜레마 상황과 티포택 전략을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인이 범죄 참여, 비합법적 행위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정 삼각형 이론의 요인 중 재정적 압박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구성하는 요인인 정보에 착안하여 우수한 전략 정보, 즉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티포택 전략 정보의 제공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실험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은 집단이 보다 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실험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점수가 낮을 것(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을 것)이며,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실험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점수가 높을 것(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낮을 것)이고, 전략 정보 제공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적 압박이 제공될 경우 작아지는 상호작용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아울러 이 두 요인 외에 어떠한 요인이 실험 수행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집단별 처치에 맞게 화이트칼라 범죄 상황을 각색한 시나리오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9번의 반복되는 딜레마 상황에서 실험 참가자가 의사결정을 통해 얻은 점수를 측정하였다. 얻은 점수를 근거로 하여 실험 참가자의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를 추정하여 판단하고, 재정적 압박, 전략 정보 유무와 기타 요인들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화이트칼라 직군(경영&사무, 마케팅&광고&홍보, IT&인터넷, 디자인, 교육, 연구개발&설계, 금융, 의료, 법률, 기타)에 근무하는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분류는 통계청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사무 종사자'에 속하는 직군을 대증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인 및 구직 플랫폼들의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참여자는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인 커뮤니티, 회사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모집하였으며, 남성 60명, 여성 42명으로 총 102명을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모집되었으며, 직위, 근무 경력 등도 다양하게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업종을 살펴보면 경영, 사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교육, 금융, 법률 순으로 이었고, 마케팅, 광고, 홍보와 연구개발, 설계는 9명 8.8%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시 그 뒤로 IT, 인터넷, 의료, 디자인의 순이었다. 참여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4년제)가 5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표 5.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0	58.8
	여성	42	41.2
연령	20대	37	36.6
	30대	36	35.3
	40대	16	15.7
	50대	13	12.7
직위	선임	53	52.0
	책임	26	25.5
	수석	11	10.8
	임원	11	10.8
	기타	1	1.0
경력	5년 미만	50	49.0
	5년 이상 10년 미만	25	24.5
	10년 이상 15년 미만	11	10.8
	15년 이상 20년 미만	6	5.9
	20년 이상	10	9.8
업종	경영	27	26.5
	마케팅	9	8.8
	IT	6	5.9
	디자인	3	2.9
	교육	15	14.7
	R&D	9	8.8
	금융	12	11.8
	의료	6	5.9
	법률	11	10.8
	기타	4	3.9
회사 형태	대기업	17	16.7
	중소, 중견기업	50	49.0
	외국계 기업	6	5.9
	공기업, 공사	10	9.8
	공무원, 공직	19	18.6
학력	고졸	4	3.9
	대졸(2,3년제)	10	9.8
	대졸(4년제)	60	58.8
	석사	24	23.5
	박사 이상	4	3.9

뒤로 석사(23.5%), 전문대졸(9.8%), 박사 이상(3.9%), 고졸(3.9%)의 순이었다.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로는 중견, 중소기업이 49%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공직(18.6%), 대기업(16.7%), 공기업, 공사(9.8%), 외국계 기업(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

실험 설계는 2(재정적 압박 지시: 있음, 없음) X 2(전략 정보 제공: 있음, 없음)의 참가자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의 배분은 총 4개의 셀에 무선할당 하며, 설계 요약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Axelrod의 게임을 변형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의 시나리오로 각색한 게임을 각각의 조건(압박 관련 지시의 유무, 전략 정보의 유무) 하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점수표를 만들기 위하여 Mackenzie의 연구(Mackenzie, 2007^b)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표 7과 같이 참여자에게 감시자가 존재하며, 게임의 상대방이 그 감시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감시자는 존재하지 않고 티포택 전략에 따라 참가자의 선택에 따른 의사결정만을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이 티포택 전략을 상대로 9번의 의사

표 6. 실험 설계 요약(단위: 명)

		재정적 압박 지시	
		있음	없음
전략 정보 제공	있음	n=26	n=25
	없음	n=25	n=26

표 7. 실험에서 사용되는 점수표

규범에 따름 (거부한다)	거래처	
	컴플레인 없음	컴플레인 있음
	3점	0점
규범을 어김 (진행한다)	감사팀	
	감사 없음	감사 실시
	5점	-2점

결정 과정을 거쳐서 얻은 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29점까지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실험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공간 안에 피험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인터넷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결과 외의 정보는 알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

연구절차

실험안내

실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고 진행한다면, 피험자들이 보다 합리적,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자연 상태에서의 합리성과 독립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실험의 목적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중 반복 수행 횟수에 따른 소요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거부하거나 진행하는 쪽,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참가자의 자유라는 점에 대해 말해주었다. 실험 시행 및 실험대기 등의 시간에 참가자 간에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지시하여 이로 인해 결과가 오염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생기는 일, 정보가 공유되거나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였다.

사전 설문 실시

실험 참여자의 연령,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의 직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 해당 업종에서 근무한 경력, 최종 학력,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 등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자기 보고식으로 보고하게 하여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실험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지, 유사한 실험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 실험에서 사용될 전략인 티포택 전략과 Axelrod의 실험에 대해 알고 있다거나, 이 실험의 목적이나 내용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 결과의 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탈락시켜야 할 피험자로 판단된다면 실험 시행 전에 탈락시키거나 티포택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은 집단으로 이동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제시 및 실험 절차 수행

참여자에게 제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옥시 가습기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본 연구에 맞게 각색하여 9단계로 나누어 토대로 삼았으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위, 조직 내에서의 신뢰, 업무 수행 과정 중 이루어지는 점 등을 기본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 부여하도록 하고 재정적 압

표 8. 재정적 압박 지시문의 내용

재정적 압박 지시문	이번 거래에서 고과점수를 25점 이상 얻을 경우 급여 100% 인상과 함께 승진이 확정되며 성과급 800%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거래가 무효로 되거나 거래처에서 회사에 5회 이상 컴플레인을 한다면 당신의 급여는 30% 삭감되며 후임에게 자리를 인계하고 한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	---

박 지시 집단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에는 재정적 압박 지시문을 추가하였다.

각 단계 시나리오 상황마다 부정 삼각형 이론의 요인 중 재정적 압박을 제외한 기회와 합리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치하였으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도덕심을 자극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이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의 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내용, ‘거래처는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당신의 회사를 통해 상용화를 시키고 싶어 한다’ 등의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읽고 갈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 Axelrod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뒷포켓 전략을 상대로 2회 이상 연속으로 배반하는 선택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연히 혹은 실수로 이런 선택을 하여 결과에 크게 영향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갈등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 결과 갈등이 크다고 보고된 시나리오(시나리오 2, 4, 7)와 작다고 보고된 시나리오(시나리오 1, 5, 8),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시나리오(시나리오 3, 6, 9)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시나리오를 각 집단 별로 처치에 맞게 재정적 압박 지시문이 포함된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하고 전략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때,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정보 제공을 함께 지시하는 집단에는 지시의 순서에 따른 순서효과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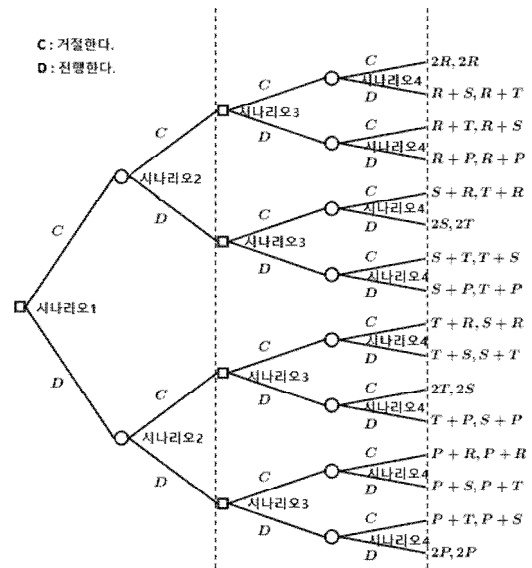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진행 프로토콜 예시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역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후 제시된 시나리오를 신중히 읽고 시나리오 속 상황이 최대한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한 뒤 시나리오 1에서 9까지 순차적으로 거부한다(3점, 0점)와 진행한다(5점, -2점)의 선택지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나리오 9까지 의사결정을 진행한 후 총점을 계산하였다. 위 그림에서 R은 규범에 따르고 컴플레인이 없는 경우로 3점, T는 규범을 어겼지만 감사에 발각되지 않은 경우로 5점, S는 규범에 따랐지만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로 0점, P는 규범을 어

겼고 감사에 발각된 경우로 -2점을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 연속으로 규범을 어기는 선택을 할 경우, 2회의 의사결정을 통한 점수의 합이 3점(T+P)으로 규범에 따른 선택(R+R)보다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한번 규범을 어기고 다음 시나리오에서 규범을 지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범을 어긴 선택 다음의 선택 차례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어 규범을 지속적으로 지킨 사람보다 점수가 낮아진다(T+S). 따라서 규범을 어기고 범죄의 기회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한 피험자는 규범을 지키는 의사결정을 이어간 피험자보다 점수가 낮아,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사후 설문 실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정적 압박과 전략 정보의 유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과 함께 재정적 압박 지시의 변인 조작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 조작으로 인해 얻게 된 갈등의 정도, 인지된 압박감의 수준을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전략 정보 제공의 조작 검증을 위해 정보의 유용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제공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디브리핑

본 연구의 본래 목적은 반복되는 과제 수행에 따른 소요시간을 측정하고자 함이 아니며,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과 연구 내용에 대해 알려주었고, 변수의 통제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의 목적에 대해 속였음을 해명하고 사과하였다. 또한 피험자

들이 실험 과정 중에 궁금해진 점이나 걱정하는 점, 정서적으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에라도 이상이 있을 시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실험에 참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보상을 지급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분석방법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재정적 압박과 전략 정보의 유무가 획득 점수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등을 통해 해당 변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획득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상호작용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부가적인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조작 검증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실행 수행 중 압박을 받았다고 느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시에 따른 압박의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8.868, p<.001$), 지시를 받은 집단이 느낀 압박감(평균=6.71, 표준편차=2.10)이 받지 않은 집단이 느낀 압박

표 9. 재정적 압박 처치 조작 결과

종속변수	압박 지시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p
압박 정도	있음	51	6.71	2.10	8.868***	.000
	없음	51	3.26	1.63		

*** $p < .001$

감(평균=3.26, 표준편차=1.63)보다 컸다.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이 느낀 압박감은 재정적 압박 지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시나리오 자체의 선택을 진행함에 있어서 갈등하며 느낀 압박감으로 판단된다.

또한 압박정도와 각 시나리오 문항에 대한 갈등정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590, p<.001$), 따라서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각 문항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더 갈등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략 정보 제공의 경우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에게 사후설문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4(유용했다)의 유용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게는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고하게 하였는데, 51명이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 조작은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양호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각 조작에 따른 획득 점수

압박의 정도와 정보의 유용성이 획득한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F(2)=11.218, p<.001$ 로 회귀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d=2.105$ 로 잔차의 독립성은 충족되었고 $R^2=.185$, 수정된 $R^2=.168$ 이었다. 다음으로, 압박 정도는 획득점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89, p<0.01$), 정보 유용성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beta=.321, p<0.01$).

실험에서 각 처치 집단에 따라 참여자에게 주어진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 압박 지시의

표 10. 획득점수와 압박 정도, 정보 유용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VIF
	(상수)	21.233				
획득 점수	압박 정도	-.996	-.289	-3.187	.002	1.000
	정보 유용성	1.330	.321	3.543	.001	1.000

표 11. 재정적 압박 지시, 전략 정보 제공 간의 상호작용

분산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합	F	η^2	p
재정 압박(A)	769.138	1	769.138	11.307	.103	.001
정보 제공(B)	675.256	1	675.256	9.927	.092	.002
A X B	103.773	1	103.773	1.526	.015	.220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F(1)=11.307, p<.01, \eta^2=.103$, 마찬가지로 전략 정보 제공의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9.927, p<.01, \eta^2=.092$. 그러나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526, p=.220, \eta^2=.015$. 따라서 획득 점수에 대한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 간에는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수준 내에서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2는 각 조작에 따른 획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획득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평균=25.28, 표준편차=3.40)이며 재정적 압박 지시도 전략 정보 제공도 없는 집단(평균=18.11, 표준편차=9.63), 재정적 압박 지시도 전략 정보 제공도 있는 집단(평균=17.77, 표준편차=9.63), 전략 정보 제공 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은 집단(평균=14.61, 표준편차=8.53)의 순으로 높았다. 즉,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획득 점수가

낮았으나, 전략 정보 제공을 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을 받지 않고 재정적 압박 지시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획득 점수가 낮았다.

다음으로 각 지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획득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에 따른 획득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t=-3.156, p<.01$), 지시를 받은 집단의 획득 점수(평균=16.24, 표준편차=9.16)가 받지 않은 집단의 획득 점수(평균=21.63, 표준편차=9.07)보다 낮았다. 또한, 압박 정도와 획득 점수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r=-.285, p<.01$) 압박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획득 점수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정적 압박 지시가 획득 점수를 저하시켰으며 이로 보아 재정적 압박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전략 정보 제공에 따른 획득 점수에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2.931,$

표 12. 각 조작에 따른 획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보 제공 있음	정보 제공 없음
재정적 압박 지시 있음	17.77(9.63)	14.64(8.53)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음	25.28(3.40)	18.11(9.63)

표 13. 각 조작에 따른 획득 점수의 차이

종속변수	조작	빈도(명)	M	SD	t	p
획득점수	압박 있음	51	16.24	9.16	-3.156	.002
	압박 없음	51	21.63	9.07		
	정보 있음	51	21.45	8.14	2.931	.004
	정보 없음	51	16.41	9.19		

$p < .01$),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획득 점수(평균=21.45, 표준편차=8.14)가 받지 않은 집단의 획득 점수(평균=16.41, 표준편차=9.19)보다 높았다. 따라서 전략 정보 제공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고득점을 한 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가치와 이에 따른 획득 점수 차이

개인의 이익과 손해, 회사의 이익과 손해, 도덕심과 양심의 세 가지 항목 중 참가자들이 실험 상황에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요인의 빈도 및 비율과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기타 요인으로 보고된 2건의 내용으로는 ‘공익성을 중시하겠다’, ‘제품의 유해성(사회적으로 피해가 가는지 여부)’라고 답하였으며, 이 2건을 제외하면 각 참가자들이 선택한 요인에 따라서 획득 점수 역시 차이를 보였다.

표 14. 선택 요인과 이에 따른 획득 점수 차이

선택 요인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의 이익과 손해	19	18.6	11.58	8.90	10.099	.000
회사의 이익과 손해	21	20.6	15.90	9.68		
도덕심과 양심	60	58.8	22.05	7.07		

개인의 이익과 손해를 선택한 경우(평균=11.58, 표준편차=8.90)가 가장 낮았으며,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선택한 경우(평균=15.90점, 표준편차=9.68), 도덕심과 양심을 선택한 경우(평균=22.05, 표준편차=7.07)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10.099,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에서 재정적 압박과 전략 정보의 유무에 따라 합리성 정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시나리오에는 죄수의 딜레마의 특징과 함께 비윤리성, 위법성, 직무상에서 일어나는 태만, 일탈, 믿음을 해치는 행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하의 특징들을 포함시키려 노력하

였다. 참가자는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정당한 지위와 조직 내의 신뢰를 보장받게 되며 각각의 시나리오에는 도덕적 갈등 상황과 함께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고 선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고과점수에 대하여도 그 위험 정도의 차이와 기회비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본다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거절하는 선택 쪽이 보다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의 반대편에서 컴플레인을 제시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증명된 티포택 전략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므로 참가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으로 대응하여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을 긍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부정을 저지를 기회가 포함된 시나리오를 제시하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며 결과적으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가담하거나 행하는 형태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적 압박은 범죄 참여 위험성을 상승시켰으며, 전략 정보의 제공은 범죄 참여 위험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ressy(1958)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재정적 압박은 흔히 인식되는 빛이 많다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압박뿐만 아니라 급여와 연관된 실적의 압박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범위 밖의 압박까지도 재정적 압박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단순한 반복적인 선택이 아닌 고도의 의식적 판단

과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전략이나 행동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전략 정보의 유무에 따라 범죄 참여 위험성이 달라진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 조작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실험실에서 대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서 주어진 정보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강한 압박이 주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적당한 지위가 주어지고 부정의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이 심하고 합리적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또 처한 상황에서 합리화나 책임전가가 가능할수록 화이트칼라 범죄에 가담하거나 행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조작 검증 결과 독립변인의 조작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비대면 실험이 아닌 실제 대면 실험이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조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변인들의 통제도 원활하여 상호작용 등의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조직 내 지위와 신뢰를 부여하고 재정적 압박을 지시하였는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조작검증 결과와는 별개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정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재정적 압박, 기회, 합리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상술하였던 부분인 범행수법이 점점 다양

해지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자면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 노상범죄와의 결합, 주가조작 등의 특이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범죄는 시나리오와 결합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형태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Hawthorne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험의 목적을 반복된 과제 수행에 따른 소요 시간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표면상의 연구목적이 실제 목적과 달라 선택에 몰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시나리오의 선택에 따른 어떤 불이익, 이익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연구자가 아닌 시나리오의 지시문을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시나리오 상황이라는 점과 온라인 비대면 실험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실험 결과가 현실에서도 완전히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험 전에 사전면담을 통해 실험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실험 후에 디브리핑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과 관련하여 피험자와 면담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여 보완하였다면 보다 원활히 실험이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되나,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되어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였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현재도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면 연구결과가 보다 의미있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칼라 직군과 다른 블루칼라, 핑크칼라 직군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의사결정이 직군의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지, 심리적 기제가 직군의 차이보다 주요한 요인인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연구함에 있어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범죄학, 경제학, 회계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응용하여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융합한 연구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죄 의사결정 실험 방법인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실험 패러다임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내어 화이트칼라 범죄도 그 본질은 여타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적 압박과 합리적 전략 정보의 유무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만큼 이러한 요인의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의 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억제,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계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범죄는 그 과정 중에 범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범죄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직무수행 등의 과정 중에 범행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그로 인해 범죄자의 이득이 아무리 극대화된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이득보다 천문학적으로 큰 경우가 대부분인 등 그 수단이 보편적

인 정의에 어긋나 있어 이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행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는 데에는 재정적 압박 등 개인의 압박에 대한 합법적이고 사회관념적으로 용인되는 올바른 해소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나아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이며 이익의 추구를 위해 정의적으로 이치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 범위 내에서 이익의 추구를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대해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재정적인 압박이 있음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말할 수 없는 고민 등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혹은 기업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지양하도록 하고, 협력적이고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사용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검찰청 (2019).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Vol.12.
- 봉 옥 (2006). 기업범죄의 특징과 수사기법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자료집, 1, 59-79.
- 성상현 (201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국회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7.
- 신동준, 장지현 (2017). 사회계층, 물질주의, 가족주의가 부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한국범죄학, 11(2), 161-200.
- 신관식 (2019). 인천세관, 고가면세품 밀수혐의 HDC신라면세점 ‘압수수색’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64>), 세정일보.
- 이윤호 (2011).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이장욱 (2017).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규범학적 재정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224-248.
- 이지윤 (2020).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영장...디지털 성범죄 140명 검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5891>), KBS.
- 조귀동 (2020). 화이트칼라 범죄자 전성시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3166.html), 조선비즈.
-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17.
- 황지태, 이천현, 임정호 (2019).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BB-01.
- Axelrod, R., Hamilton, D. W.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⁴⁴⁸⁹⁾, 1390-1396.
- Cliff, G., Desilets, C. (2014). White collar crime: What it is and where it's going. *Nort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8⁽²⁾, 481-523.
- Cornish, D. B. (1978). *G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 research: A home office research unit report.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Cressey, R. D. (1953). *Other people's money; A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y of embezzlement*. Free Press.
- Freidrichs, O. D. (2009). *Trusted criminals: White collar crime in contemporary society*. Cengage Learning
- Geis, G. (1991). White-collar crime: What is it?.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3(1), 9-24.
- Girila, L., Rub, J. (2015). Psychological portrait of the white-collar offender decision-making and rational choice. *Revista Nacionala de Drept*, 179(9), 25-33.
- Howe, A. M., Malgwi, A. C. (2006). Playing the ponies: A \$5 million embezzlement cas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2(1), 27-33.
- Isenhour, E. (2006). United States v. Martin: Game theory and cooperation in white-collar criminal sentencing. *Liberty University Law Review*, 2, 271-303.
- Ferejohn, J. (2000) Rationality and Interpre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in early Stuart England. *Culture and Politics*, 393-412.
- Huisman, W. (2017). Offender decision making in corporate and white-collar crime. *The Oxford Handbook of Offender Decision Making*.
- Kassem, R., Higson, A. (2012). The new fraud triangle model. *Journal of Emerging Trends in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s*, 3(3), 191-195.
- Kiszlinger, N. H., Zilizi R., Nagy, I. (2011).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cooperativeness using the prisoner's dilemma. *Acta Scientiarum Socialium*, 33, 55-59.
- Mackenzie, S. (2007). Tit for tat: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ottis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tudies*, 13, 58-71.
- McMahon, Richard, Pence, Diana, Bressler, Linda, Bressler, Martin, S. (2016). New tactics in fighting financial crimes: Moving beyond the fraud triangle. *Journal of Legal, Ethical and Regulatory Issues*, 19(1), 16-25.
- Paternoster, R., Simpson, S. (1996). Sanction threats and appeals to morality: Testing a rational choice model of corporate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0(3), 549-584.
- Payne, K. B. (2018). White-collar cybercrime: White-collar crime, cybercrime, or both?.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Law & Society*, 19(3), 16-32.
- Ruankaew, T. (2016). Beyond the fraud diamon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and Economic Research*, 7(1), 474-476.
- Schoepfer, A., Piquero, L. N., Langton, L. (2014). Low self-control versus the desire-for-control: An empirical test of white-collar crime and conventional crime. *Deviant Behavior*, 35(3), 197-214.
- Sutherland, E. (1949). *White collar crime*. New York: Dryden Press.

1 차원고접수 : 2021. 06. 07.

심사통과접수 : 2021. 06. 29.

최종원고접수 : 2021. 07. 27.

The Effects of Financial Pressure and Tit for tat Strategy on Decision Making in White-collar crime

Donggyu Hong

Eunkyung Jo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hite-collar crime. In a between-subject experiment, 102 adult white-collar worker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financial pressure condition or tit for tat strategy condition. Participants went through a decision-making process in a modified iterated prisoner's dilemma for a white-collar crime scenario to earn points. The obtained score indicated the risk of committing a crime. The lower the score, the higher was the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received only tit for tat strategy information without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showed the lowest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and those who received only financial pressure without the strategic information had the highest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In addition, those who received the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a crime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strategic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need for measures to legally relieve financial pressure, the need for education on white-collar crimes for office workers, and the need for a decision-making structure within the enterprise that is not dogmatic but cooperative and mutually verifiable.

Key words : *White-collar crime, Decision making, Fraud triangle, Tit for tat, Prisoner's dilemma*

부 록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시나리오 0

당신은 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 회사의 유일한 규범은 ‘위험부담 없는 안전한 거래’입니다. 이 회사에서 당신은 동료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당신이 업무 상 하는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고, 이에 대해 의심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따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거래처를 상대로 한 중요한 거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거래에 관련된 미팅이 수 회 반복될 예정이며 몇 회 미팅을 해야 종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이 미팅에서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팅에서 규범에 따라 제안을 거절한다면 3점의 고과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범을 어겨 제안을 승낙해 진행된다면 큰 이익을 얻어 5점의 고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서 거래가 느리게 진행된다거나 거래가 어려워진다면 거래처에서 당신의 회사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0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규범을 어겨 진행할 경우 감사팀에게 규범을 어긴 것이 발각된다면 고과 점수 5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점 감점 당하게 됩니다.

(압력 처치 집단 제시문)

이번 거래에서 고과점수를 25점 이상 얻을 경우 급여 100% 인상과 함께 승진이 확정되며 성과급 8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거래가 무효로 되거나 거래처에서 회사에 5회 이상 컴플레인을 한다면 당신의 급여는 30% 삭감되며 후임에게 자리를 인계하고 한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거래처와 감사팀은 양측 모두 당신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으며, 미팅내용은 알 수 없고 당신이 지난 거래에서 선택한 행동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첫 번째 미팅입니다. 당신의 거래처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며 어떤 물품을 국내에 상용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 미팅에서 거래처가 당신에게 제공한 거래물품의 구성성분표에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두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지난 첫 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성분에 관해 관련기관에 해

한국심리학회지 : 법

당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기관에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음용하지 않는다면 유해하지 않다고 밝히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전문가는 당신에게 해당 성분과 관련된 독성실험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세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에서는 해당 물질에 대한 독성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전문한 실정이어서 자체적으로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계산하여 검사기관에 보고하였고,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당신에게 거래처에서 계산한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국가 검사기관의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

네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에서는 해당 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유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해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세 번째 미팅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에는 철저히 문제가 없고 검사 기관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상용화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상용화는 미뤄집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5

다섯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는 네 번째 미팅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해외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래처에서 해외 국가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 제출한 보고서에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관해 당신이 들은 내용보다 크게 밝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6

여섯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는 해당 보고서가 다른 이유는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해당 수출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준 차이는 상이하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7

일곱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여섯 번째 미팅에서 당신이 우려했던 바에 대해 이해하

였으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고 해당 실험에 관련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관하였으며 그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은 물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관한 실험이 아닌 유해한 정도가 국가기준에서 허용되는 수준인가에 관한 실험입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8

여덟 번째 미팅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앞선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며 이를 공개하고 상용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당 보고서는 해당 물질의 용도가 누락되어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정도에 대해 지엽적으로 서술되어있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심사에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9

아홉 번째 미팅입니다. 회사연구팀에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음용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상용화를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는 해당물품은 애초에 음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그런 논리라면 비누, 손 세정제 등의 제품 역시 상용화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긴 하지만 음용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거래처는 당신에게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 당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 거래가 끝난 후 원하는 조건으로 이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이번 거래에서 상용화를 확정지어 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합니다.